아모레퍼시픽 한율, 새 모델로 배우 박은빈 발탁

아모레퍼시픽 한율이 새 모델로 배우 박은빈을 선정했다. 회사 측은 "뚜렷한 철학을 바탕으로 배역을 선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박은빈의 모습이 브랜드의 지향점인 '균형 잡힌 아름다움'과 잘 부합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은빈은 한율 모델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진출 20주년 맞은 벤츠 코리아

"럭셔리·지속가능성 집중…올해 12개 신차 출시"

올해로 한국 진출 20주년 맞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대표이사 사장 토마스 클라인)가 1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 전략 및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럭셔리·전동화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2종의 신차와 2종의 완전변경 모델, 8종의 부분변경 모델 등 12종의 새로운 차량을 선보이고, 한국사회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임원들이 '더 뉴 EQS SUV' 차량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요하네스 슌 제품·마케팅&디지털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 조명아 네트워크 개발&트레이닝 아카데미 부문 총괄 부사장, 이상국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 틸로 그로스만 고객 서비스 부문 총괄 부사장, 스테판 알브레히트 재무 부문 총괄 부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뉴 EQS SUV'로 올해 포문 열어
하반기에는 'EQE SUV' 출시 예정
최상위 모델 판매 증가…입지 강화
한국 사회와 상생 사회공헌활동도

●올해 12개 차종 선보이며 시장 공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총 12종의 차량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지난달 31일 공식 출시한 '더 뉴 EQS SUV'로 포문을 열었다.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2를 적용한 첫 번째 럭셔리 전기 SUV로 최대 459 km의 전기 주행거리와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파워풀한 주행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더 뉴 EQE SUV'를 들여온다. 실용적인 실내 공간과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통해 전기 SUV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를 대표하는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중형 SUV인 GLC의 3세대 모델 '더 뉴 GLC'도 연내 출시된다.

총 8대의 부분변경 모델도 출시한다. ▲콤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GLA ▲실용적인 패밀리 SUV 모델 GLB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실용성과 주행 성능을 갖춘 GLE 및 GLE 쿠페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편안함을 갖춘 플래그십 SUV 모델 GLS ▲콤팩트 쿠페 세단 CLA ▲진보적인 콤팩트 모델인 A-클래스 해치백과 세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진출 20주년 맞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수입차 최초로 단일 브랜드 연간 판매 8만대를 돌파했으며, 한국 진출 후 최다 판매인 8만976대(KAIDA 발표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와 마이바흐GLS, S-클래스 등 브랜드 내 최상위 차량들의 판매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하며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연간 베스트셀링 모델 1위 기록을 이어오고 있는 10세대 E-클래스는 수입차 단일 모델 최초로 2022년 누적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고, 전기차 전용 EQ 브랜드는 '더 뉴 EQE'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전년 대비 약 3.7배 성장을 이뤘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 사회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국내 공식 출범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해 어린이 눈높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 산불로 소실된 산림 복원 사업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에는 순수 전기차인 메르세데스-벤츠 EQ 차량을 총 20대 기부하고, 기부문화 확산 달리기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를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토마스 클라인 대표는 "2023년에는 새로운 전략으로 메르세데스-벤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더 많은 고객분께 가장 가치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나에게 맞는 최적의 사이즈 추천" LF몰, '마이 사이즈' 서비스 론칭

LF의 공식 온라인몰인 LF몰이 관심 상품·브랜드별 최적의 크기를 제안하는 '마이(MY) 사이즈' 서비스(사진)를 선보였다.

비대면 구입 시 옷 크기로 겪는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내 정보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토대로 유사한 타 회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사이즈를 제안한다. 또 기존 구매했던 제품 중 본인에게 가장 잘 맞았던 상품을 연동해두면 타 상품을 볼 때 대표 비교 상품으로 사이즈를 제안해준다.

부모님, 연인, 친구의 사이즈 등록도 가능하다. 프로필마다 카테고리별 최적의 사이즈를 추천 받을 수 있어 기념일 선물에 용이하다. LF몰 모바일 앱 및 PC화면에서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상품별 상세 페이지의 상품정보 하단 사이즈 안내 영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사이즈로 인한 구매 실패 경험을 줄일 수 있고, 제품 구매 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비대면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차별화 서비스를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SKT, ESG 스타트업 육성…내달 7일까지 모집

SK텔레콤은 'ESG 코리아 2023'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ESG 코리아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하고, 스타트업들이 ESG 성과를 측정해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ESG 코리아의 총괄 운영을 맡아 스타트업과 전문가 집단, 투자회사 관계자, ESG 성과 측정 기관 등을 연결하고, 스타트업들이 ESG 목표 설정부터 서비스 개발·시장진입·글로벌 확장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 7일까지 SK텔레콤의 트루 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마련된 지원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디야커피, 대용량 점보 텀블러 3종 출시

이디야커피가 대용량 사이즈의 점보 텀블러 3종(사진)을 내놓았다. 그립 2종과 컴포트 1종으로 구성했다. 그립은 손잡이형 스텐 텀블러로 미드나잇블루와 쿨그레이 색상으로 만날 수 있다. 음용구 커버를 통해 먼지 유입 방지 및 보온 보냉 유지 기능을 높였다. 컴포트는 밀폐형 스텐 텀블러로 오로라블루 색상으로 출시했다. 별도로 손잡이 끈, 빨대, 세척솔 등을 제공한다. 출시 기념으로 점보 텀블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뉴 아메리카노 1000원 할인 쿠폰 2장을 증정한다. 할인 쿠폰은 텀블러 안에 포함돼 있다.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10년 만에 분기 적자

작년 4분기 영업손실 1조7012억
반도체 다운턴 지속…영업이익↓
"DDR5·기업용 SSD로 반등 기대"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6986억 원, 영업손실 1조7012억 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분기 단위 영업 적자가 나온 건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44조 6481억 원, 영업이익 7조 66억 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적자를 낸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한파'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성장세는 이어졌으나 하반기부터 반도체 다운턴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회사는 투자와 비용을 줄이고, 성장성 높은 시장에 집중해 업황 악화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도 다운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축소와 감산 기조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이 늘지 않아 재고가 상반기 중 정점을 기록하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IT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을 늘리며 점진적으로 시장 수요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은 "최근 인텔이 DDR5가 적용되는 신형 CPU를 출시하고, AI에 기반한 신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용 DDR5와 176단 낸드 기반 기업용 SSD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시장 반등 시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2022년 19조 원 대비 50% 이상 줄인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DDR5·LPDDR5, HBM3 등 주력제품 양산과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더 견고한 체질로 무장해 글로벌 초일류 기술기업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몽골 몬니스와 MOU…희토류 국내 공급 가속

KT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몬니스 그룹과 희토류 광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몬니스 그룹은 몽골 내 희토류 채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광물 자원개발 및 채굴 분야 핵심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KT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희토류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은 "그동안 몽골 자원 수급을 위한 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로 인해 몬니스 그룹과의 MOU 등 자원 공급을 위한 후속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오른쪽)과 출룬바토르 바즈 몽골 몬니스 그룹 회장. 사진제공 | KT

韓맥도날드, 35주년 맞아 직원 유니폼 새 단장

맥도날드가 1일 국내 진출 35주년을 맞아 전국 매장의 직원 유니폼을 약 6년 만에 새 디자인(사진)으로 교체했다. 신규 유니폼은 매장 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성의 완성도를 높였다. 더욱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신축성을 높였으며, 간편하게 세탁하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탁 용이성을 고려해 소재를 업그레이드했다. 유니폼 색상은 현대적인 느낌의 네이비와 오트밀 색상을 기본으로 브랜드의 노란 시그니처 색상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특히 보온을 위해 착용하는 '페트 리사이클링 아우터'는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유니폼으로 제작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